흑산공항 2017년 첫 삽

흑산공항·울릉공항 위치도

'철새 영향' 등 대폭 보완…환경부 평가 통과

50인승 비행기 이·착륙 국내 첫 소형 공항

흑산면 예리 일원에 들어서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오는 2017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들어설 흑산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난달 25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말 흑산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초 공사 입찰공고를 낼 계획이다.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울릉공항과 함께 진행됐으나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건설할 때 철새에 미칠 영향에 대한 조사·분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했었다. 국토부는 이후 흑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대폭 보완해 지난 10월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청했고 이번에 협의를 마쳤다.

환경부는 공항 실시계획 수립 시 철새 종류와 개체 수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철새 습성에 맞춘 대체서식지 조성 등으로 공항 건설이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울릉·흑산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는 두 공항 실시설계를 내년 말 완료하고 2017년 초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북 울릉군 사동항 일원에 들어설 울릉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8월 마무리됐으며 울릉공항 기본계획도 지난달 이미 고시됐다.

흑산공항은 길이 1200m, 폭 30m의 활주로에 50인승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된다. 소형공항 건설은 국내 최초다. 기본계획안을 기준으로 한 사업비는 흑산공항이 1835억원, 울릉공항이 5805억원이다.

흑산공항은 2020년, 울릉공항은 2021년 개항이 목표다. 울릉도와 흑산도의 연간 선박결항률이 25%와 13% 안팎이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서면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흑산공항 통행객은 2020년 76만6000명, 2030년 88만3000명, 2040년 95만4000명으로, 울릉공항은 2021년 80만9000명, 2030년 92만5000명, 2040년 101만3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훼손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한국신문협회 포럼 한국신문협회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정하웅 KAIST 교수를 초청해 '빅 데이터로 여는 미래:구글 신(神)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신문협회 송필호 회장과 김여송(광주일보 사장) 부회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전·현직 발행인 40여명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 제공〉

여야, 입법 전쟁 '2라운드'

'원샷법' 등 6개 법안 정기국회 합의 후 처리

'노동 5법' 등 이견…심의 과정 진통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광진흥법 등 5대 쟁점법안 일괄처리를 합의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해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다. '노동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소관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현재 이들 법안에 대해 갖가지 이유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야당 내부에서는 3일 새벽 처리한 예산안과 법안과 관련,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야당은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 처리하겠다'는 문구를 '합의 후 처리'로 수정하는 조건으로 5개 쟁점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받아들였다.

재협상 후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는 3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쟁점 법률안 5건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2건(관광진흥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새정치민주연합이 3건(대리점거래 공정화법·모자보건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결과다.

여야는 전날 상임위와 법사위를 잇따라 개최해 5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상임위 통과 후 5일 숙려기간을 둔다'는 국회법 규정을 들어 법사위 심의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토대로 심사기간을 2일 오후 9시로 지정해 법사위를 거치지 않은 채 상임위에서 곧바로 본회의로 회부 상정해 가결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2018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5건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 인구 73억5천만명

한국 5030만명 27위

전 세계 인구는 73억5000만명 가량이며, 한국은 5000만명으로 인구규모에서 세계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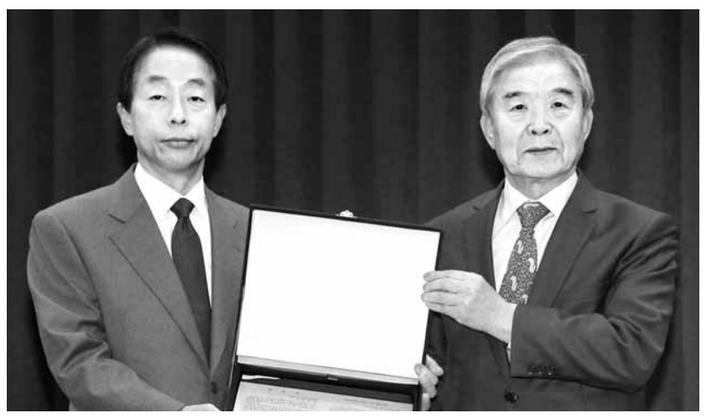
인구보건협회가 3일 발간한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5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을 보면, 세계 총인구는 2015년 73억4900만명으로 2014년(72억4400만명)보다 1억500만명이 늘었다.

중국은 13억7600만명으로 2014년(13억 9380만명)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전 세계 인구 1위 국가 자리를 지켰다. 그다음으로 인도(13억 1110만명), 미국(3억218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는 5030만명으로 세계 27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520만명으로 세계 50위에 올랐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7550만명으로 세계 20위였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일본이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탈리아 22%였다. 우리나라는 13%로 50위였다.

출생 때 평균 기대수명(2010~2015)은 남자 69세, 여자 74세로 2014년보다 각각 1세, 2세 증가했다. /연합뉴스



5·18기념재단 등 5개 민주화운동단체

故 김영삼 전 대통령에 공로패

5·18기념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등 5개 민주화운동 단체는 3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역사바로세우기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에 큰 역할을 한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하고, 유족대표인 김현철(왼쪽) 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특별법 제정으로 본 민주화의 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역사바로세우기의 역사적 의미와 남은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내년 1만명 추가 입영…국방 예산 38조7995억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1만명 추가 입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모두 38조7995억원으로, 올해보다 3.6% 증가한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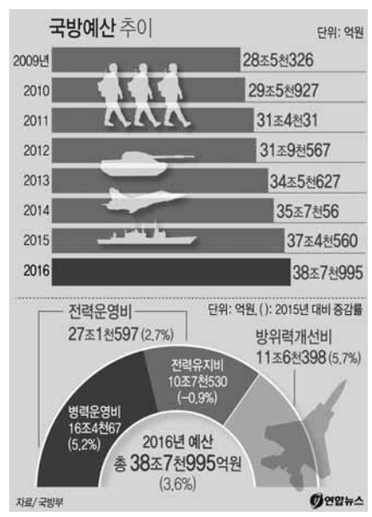
이 가운데 군 복무 여건 개선을 포함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2.7% 늘어난 27조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분야별로 보면 내년에 1만명을 추가 입영시키기로 하면서 병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피복비는 632억원 늘어났다.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도 27억원 증액됐다. 국방부는 올해 3만6441대인 군부대의 세탁기와 건조기를 내년에는 4만7561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률이 96~98%로 상승한다.

병사 월급을 상병 기준으로 15만4800원에서 17만8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은 정부안대로 유지됐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오른다.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을 포함한 방위사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5.7% 늘어난 11조6천398억원으로 정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2016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정 시
인문	신 학 과	19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3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5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심어송라이터 등	5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2. 24(목) ~ 30(수) ·전형일 : 2016. 1. 5(화)

대 학 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 집 인 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5

▶전형일정
·원서접수 : 2015. 11. 23(월)~ 25(수) ·전형일 : 2015. 11. 27(금)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임을이 있는 대학 · 임을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교수 초빙

글로벌 세상을 선도하는 동강대학교에서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교원을 초빙합니다.

초빙분야 및 인원

채용구분	학과	인원	전 공 분 야	비 고
전임교원	간호학과	0명	간 호 학	-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상(종합병원) 또는 전공 관련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시뮬레이션 강의 경험자 우대
		0명	기초생명과학 (해부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등)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관련 기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전임교원 (강의전담)	전기전자과	0명	전력공학, 전기기기	- 박사학위 소지자
	간호학과	0명	간 호 학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호텔조리 영양학부	0명	호텔조리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
	유아교육과	0명	교 육 학	- 박사학위 수료 이상인 자
		0명	유아교육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유아교육 현장경력 소지자 우대
	뷰티미용과	0명	헤어, 피부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학협력 중점교원	간호학과	0명	간 호 학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접수기간 2015. 12. 17.(목) ~ 12. 18.(금) 17:00까지
접 수 처 우리대학교 사무처 행정지원팀 ☎(062)520-2211-2
세부사항 우리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kc.ac.kr) 교수초빙 공고 참조

동 강 대 학 교
(61200)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50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희소식
유한바이오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o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 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Daum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